

[ 여수·순천·광양 ]

여수세관, 밀수선 단속현장 르포

검색 30분만에 '시알리스' 와르르

(발기부전 치료제)

중서 온 화물선 급습...양담배 등 쏟아져  
"김장철 고추 등 농산물 밀수 감시 강화"

지난 22일 오전 10시, 여수 신항에 정박해 있던 여수세관 소속 50t급 '진남303호' 감시정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에서 출발, 여수항 입항 예정인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에 밀수품이 실려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검문대상인 파나마 선적의 2천700t급 케미컬 운반선은 예상보다 20여 분 늦은 10시30분 오동도 앞 해상에 도착했다. 단속반원이 화물선에 올라타자 사전에 '밀수 단속' 통보를 받은 항해사가 앞장서 단속반을 이곳저곳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밀수 단속은 시작 전부터 반발에 부딪혔다. "특별한 증거

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단속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화물선 선장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것.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결국 선미와 선실 등을 중심으로 검색이 이뤄졌다.

검색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선실 침대 아래쪽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가 다량 발견됐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품목인 만큼 현장에서 압수됐다. 또 다른 선실에서 발견된 양담배

는 가짜일 가능성이 커 선원의 양해를 구하고 우선 10갑을 현장에서 구입했다. "현재 세관에서 추적중인 가짜 담배로 의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구입하는 것"이라는 게 세관 측의 설명이다.

단속반을 이끌고 화물선을 검색한 여수세관 조사팀 김경환 반장은 "요즘 같은 김장철엔 농산물 밀수를 막는 것이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여수세관 조사팀 직원들이 파나마 선적 화물선의 선실을 수색하고 있다.

길이라는 생각이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 고추 등이 국내로 밀수입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여수세관의 움직임도 부쩍 바빠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농산물을 뿐만 아니라 가짜담배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 밀수 품목도 다양해졌다.

김 반장은 "남해안의 경우 서해안보다 대규모 농산물 밀수가 시도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짜 담배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각종 공산품의 밀수에 대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세관은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원산지 위반 1건, 상표법위반 1건, 관세포탈 1건, 외국환위반 4건, 밀수입 13건, 중고신박 밀수출 1건 등 모두 27건 88여 원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유적공원 150평은 협소  
유구 4~5기도 설치 못해

창동기시대에서부터 고려초기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지와 수백 점의 유물이 발견됐던 순천 덕암동 유적지내에 150평 규모의 유적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공원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28일 "아파트 예정부지인 덕암동 유적지 시공사 측이 150평 규모의 유적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공사측이 제시한 150평은 발굴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 내기에는 그 규모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지 형태인 유구를 옮겨 복원하다 해도 150평 규모에는 4~5기 정도 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순천 덕암동 유적지

유적공원 규모 논란

"市, 보존 외면" 비난

순천시가 덕암동 유적지 보존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유산 공유 측면에서 발굴 착수 당시 유적 보존 방안을 적극 강구했어야 했다고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라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보존 공간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파트 개발을 조건으로 발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유적지 완전 보존은 처음부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에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9개동 49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덕암동 유적지에서는 BC 3세기부터 6세기에 걸친 주거지 24기와 석관묘, 옹관묘 등 무덤 10여기, 경질무문토기 등 170여점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Rows include population, area, and other statistics for various regions.

여수 양식굴 폐사율 67% 달해

市, 내달중 자연재해 판정 정부에 보상 건의

여수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굴 수협, 남해수산연구소 등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여수지역 양식 굴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피해율이 6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식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폐사 피해가 없었던 돌산과 가막만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가막만과 장수만, 돌산 굴전 일대 굴 어장에서 자라고 있는 굴이 폐사하기 시작, 총 37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사상 유례없는 높은 폐사율이 확인됨에 따라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 지원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에는

적조나 고수온, 저수온 등 이상조류로 발생한 피해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번 양식 굴 폐사가 평년보다 2~3℃ 높은 바다 고수온 현상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해수산연구소측의 정확한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재해 판정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수시는 다음달 초순경 정확한 피해액수와 폐사 원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고수온에 의한 피해로 확인되면 자연재해 인정과 함께 정부에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전남도에 복구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지원

여부와 규모는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지역 연안에서는 400여 어가가 해마다 5천800t의 굴을 생산, 연 평균 160억원의 소득을 올려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 주민자치센터 개소 잇따라

여수시 일선 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잇따라 개소되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울촌면과 곡동, 주삼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여수지역 22개 면·동사무소 가운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문을 연 곳은 19곳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는 물리치료실을 비롯해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유아놀이방,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LG화학 여수공장 '월동맞이 집 고쳐주기'

LG화학 여수공장이 다양한 지역 사랑 실천운동을 펴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최근 여수지역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11가구를 선정해 보일러 수리 및 장판교체

등 '월동준비 집 고쳐주기 행사'를 벌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98년 여수시에 기부 채납한 쌍봉 종합사회복지관과 LG복지재단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Advertisement for '장생·두충 오가피 식품' (Longevity, Two-Tongue, O-gapi Food Products). Features text abou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Gyeongnam GGGWan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신한국부동산' (Shinkook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Gwangju.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믿음공인중개사' (Mideum Gongin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by 'GGGwangju',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21세기건설링주식회사' (21st Century Construction Ring Co.),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